

려 있다. 舍利의 奉安方法은 內瓶을 外瓶 속에 넣고 瓶口를 楮紙로써 密閉하였는데 密閉한 楮紙속에 綠豆보다 훨씬 작은 白色眞珠 三十六顆가 絹糸를 노끈 모양으로 꼬아서 꿰어져 있었다.

全高 九·六 cm 瓶高 六·九 cm 蓋高 三·二 cm 鈕高 二·二 cm 胴徑 四·二 cm 口徑 二·九 cm 蓋徑 三·四 cm 連鎖環의 長 十一環 結 六·五 cm 連鎖環의 長 十二環 結 七 cm

B、內瓶과 舍利

內瓶은 銀製 臺付有蓋瓶으로도 銀質이 酸化하여 瓶全體를 紫鏽이 덮고 있으며 彫刻이 없는 素文瓶인데 蓋에는 二段의 塔形鈕가 달려 있고 內部에는 外瓶에서와 같이 楮紙로 極小粒의 眞珠 七粒(白色 六 黑色 一)을 싸서 充滿시켰다.

瓶의 纖細한 手法과 流麗한 線은 마치 高麗靑磁에서 볼 수 있는 神秘感을 느끼게 한다.

全高 四 cm 瓶高 三 cm 蓋高 一 cm 鈕高 〇·八 cm 胴徑 一·八 cm

口徑 一 cm 蓋徑 一·三 cm

三、結言

以上으로 扶餘 長蝦里 石塔의 舍利具에 對하여 簡單히 記述하였는데 舍利藏置로서는 比較的 簡略한 形式이나 前記한 바와 같이 同塔의 基壇部에서 發見된 小形의 塔像이 高麗代 遺物로서 考證되어 왔고 今般檢出된 舍利具의 性格이 高麗代의 遺物임이 거의 確證됨에 長蝦里 異形石塔의 建立年代를 考證하는데 더욱 重要한 資料가 될 것이며 同塔內 發見遺物이 二次에 걸쳐 完全히 收拾保存하게 된 것은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南原 周生面의 石佛 二軀

鄭 永 鎬

昨年 十二月 下旬 南原郡 周生面에서 石佛 二軀를 調査한 바 있어 簡

單히 紹介한다.

一、樂洞里立像(사진參照)

樂洞里部 落吳미처 林野에 位置하며 그 周圍에는 麗代의 瓦片과 磁器破片이 散在하였다. 石佛의 膝部 以下가 埋沒되었는데 近年에 洞民



들에 依하여 그 全體가 들어났으며 磨滅된 部分은 아직 純白으로 彫刻도 完全한데 그 以上の 露出되었던 곳은 磨滅이 甚한 部分도 있어 彫刻의 痕跡만 보이는 곳도 있다. 花崗石材인 이 佛像은 光背와 臺座를 具存한 南向正面直立의 如來像인 바 特別히 方形下臺上의 八角臺座가 注目되었 다. 一邊長 一一·五 cm 高 一·六 cm의 方形下臺前、左、右、上面에는 伏蓮이 있고 高 七·五 cm 四分圓의 물딩을 刻出하였으며 그 위에 高 四 cm의 角形받침一段이 있는데 그 上面에는 八角의 角形받침一段이 마련되어 上臺를 받고 있다. 一邊長 三·三 cm 八角上臺에는 八瓣의 仰蓮이 새겨졌고 上面에 佛像의 兩足이 彫刻되었는데 그 左右에는 徑 一·四 cm의 形花紋이 線刻되었다. 佛像과 光背는 一石이며 舟形擧身光으로서 그 頂上에는 形花瓣을 陽刻하고 二重線으로 頭身光을 表現하였는데 그 內周에는 花紋을 돌렸으며 外緣에는 火焰紋이 流麗하게 彫刻되었다. 光背로부터 陽刻된(厚 一·四 cm)立像은 高 一·三 cm 로서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가 짧으며 三道가 있다. 相好는 磨損이 甚하여 眼·鼻部가 어렴풋할 뿐 分明치 않다. 溫柔한 양복에는 微笑가 어린다. 通肩한 法衣는 胸前으로부터 平行圓弧를 그리면서 내려졌고 兩腕에 걸친 衣端은 兩脚左右에 굽게 펼쳐졌다. 兩手が 破損되어 手印은 確然치 않으나 右手를 胸前에 들은 듯하며 左手는 臍前에 들었는데 持物이 있는 듯하다. 臺座의 蓮瓣이나 衣紋、火焰等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羅末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이 佛像에 對하여는 記錄이 全히 없는데 隣近의 瓦片 등으로 미루어 建物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이렇듯 貴重한 一例가 放置되었음에 對하여 앞으로 當局의 保護施策과 아울러 이 곳 一帶의 發掘再調査를 期待하는 바이다.

實測値는 總高 二四〇cm 光背 厚 二四cm 高一八〇cm 廣幅 一〇〇cm 下

幅 八cm

佛像 肩幅 四二cm 胸幅 二〇cm 頭高 三六cm

二、池塘里立佛

池塘里道路邊 畑中에 南向하여 現存하는 바 이에 關해서는 寶物古蹟調査資料에 記錄(註)이 보인다. 厚 四〇cm의 花崗板石으로 圓刻된 이 立像은 兩肩에 圓形頭光이 있으며 臺座는 없다. 頭光에는 頭部左·右周邊에 蓮瓣이 彫刻되었고 上部에는 無瓣인데 그 外周緣에는 花紋이 어렴풋하다. 像高는 三三三cm로서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가 窄다. 相好는 磨損이 甚하여 各部分이 分明치 않으며 三道는 없다. 通肩한 法衣는 胸前에서 U字形을 이루고 그 밑은 길게 圓弧를 그리면서 내려졌으며 兩腕에 걸친 衣紋은 굵게 垂下되었는데 左腕에서는 주름이 잡힌채 下端까지 내려진 것과 下端紋의 樣式的인 주름이 注目되었다. 兩手足은 別造로 鑄는 形式이어서 그 位置에 圓孔이 右手보다 밑에 있는 點과 左腕에 걸친 衣紋으로 보아 與願施無畏의 印相으로 짐작된다. 後面은 衣紋이 全無하며 굵게 다름었다. 頭光이나 衣紋의 手法으로 미루어 보아 年代는 前述한 樂洞里立像과 同代로 推定되었다. 앞으로의 保護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値는 總高 三三三cm 佛像肩幅 一一五cm 頭光徑 一八二cm

끝으로 이 調査에 있어 함께 踏査하여 實測等 많은 助言을 준 同人 文甲洙, 孟仁在, 申榮勳 諸氏와 特히 現地案内에 手苦를 해주신 南原郡 敎育課 楊南根 獎學係長의 厚意에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註) 「石佛一座アリ 高サ十一尺 幅三尺 五寸 彫刻アリ 完全라 있다.

謙齋의 竹西樓圖

孟仁在

竹西樓는 寶物二二三號이며 國寶圖錄 第六輯에 의하면 正面 七間 側面 二間의 規模를 가지고 있는데 建物의 樣式은 李朝中期의 그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런데 이 竹西樓圖는 描寫가 徹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推定하는 李朝中期의 本樓建築樣式을 어느 程度 明示하여 준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次元에서(單純한 記錄으로서) 생각할 때 漢陽近郊나 金剛山을 비롯한 京鄕各地의 勝景을 無數히 寫生한 謙齋가 이 竹西樓도 빠뜨리지 않았다는데는 安堵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畫面을 보건대 樓는 中段에 突出한 絶壁위에 있으며 그 左右에 建物들이 나타나 있으나 이들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이다. 絶壁은 堅實히 表出되어 있다.

